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 “소녀들은 마음껏 꿈을 꿀 권리가 있다”

차승만 (KOICA 교육보건팀 차장)

장은정 (KOICA 교육보건팀 과장)

김명진 (KOICA 교육보건팀장)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목차

- I. 왜 ‘소녀의 교육과 보건’인가?
 - II. 소녀의 교육과 보건은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소녀를 위한 교육, 보건의 개발에 있어 갖는 중요성)
 1. 소녀 교육과 모성 건강
 2. 소녀를 위한 보건사업의 근거
 3. 소녀 교육과 아동 건강, 가족건강, 자녀교육
 4. 소녀 교육과 HIV/AIDS
 5. 소녀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의 근거
 - III. 목표, 핵심가치
 1. 목표
 2. 핵심가치
 - IV. 세부 추진 프로그램
 1. 소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2. 소녀 친화적 환경
 3. 소녀의 미래 역량 강화
 - V. 결론
- 참고 문헌

초록(Abstract)

소녀는 미래 가정의 주체로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집단으로 부상하여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은 소녀를 위한 집중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정부는 소녀를 중심으로 SDGs 달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2015년 9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G)’ 구상을 발표하여, 향후 5년 간 2억 불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KOICA는 국제사회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소녀들의 교육과 보건, 미래역량에 중점을 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이행하려 한다.

소녀가 자라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 우리는 여성 경제 참여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받은 여성인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임에 주목하며, 소녀들에 대한 지원이 개발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길임을 확신한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통해 소녀를 대상으로 구현하는 양질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양성을 돕고,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인 사회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1. 왜 ‘소녀의 교육과 보건’인가?

지난 15년 간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감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 입학률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깨끗한 식수접근성은 2010년에 목표를 조기달성하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앞으로 15년을 좌우하게 될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이다. 가히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혁신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MDGs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면서 포용성, 보편성, 평등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중점을 두며,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존의 3대 축의 균형적 조화를 강조하는 SDGs 출범에 맞추어, 우리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이 처한 상황에 시선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 소녀들의 교육과 보건 상황을 주목하는가? 지난 MDGs 캠페인 기간 동안 초등교육의 순취학률에서 빠른 진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5,800만 명의 학령기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UNESCO, 2015). 그런데 이 불행한 수치는 2012년 이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 네 명 당 한 명이 중도 탈락을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 취학한다고 해서 교육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MDGs 기간 동안 교육분야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질이 등한시되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계적으로 문해·수리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1억 2,600만 명에 달한다. 우리는 이 5,800만 명의 학교 밖 아동과 1억 2천 6백만 명이 과연 누구인지에 더 주목한다. 이들 중 60%가 소녀들이며, 이들 중 다수가 빈곤층에 속하며, 절반이 분쟁지역에 거주한다(UNESCO, 2015).

MDGs 기간 동안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에서 남학생 등록률에 비해 저조한 여학생 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에 있어서, 남아시아 지역을 위시한 52개 국가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57개 국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World Bank, 2016). 그리고 또 다른 25개 국가에서는 이를 확인할 자료조차 없는 상태이다(World Bank, 2016). 학교 밖 아동의 44%가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며, 19%가 남아시아 지역의 청소년이다. 2010년 기니와 니제르의 예를 들면, 부유한 계층에 속한 소년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80%를 넘어섰는데, 같은 해 가장 빈곤한 계층의 소녀들 중 7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별 소용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소녀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가족을 위해 땀감을 구하고 물을 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이 비단 일부 지역의 잘못된 구습 탓만은 아니다. 학교에 보내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졸업을 한다 해도 가족과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여성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사양성 교육을 거친 교사는 75%가 채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기초 산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역사회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칠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소녀들이 학교로 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UNDP 조사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도 탈락을 하는 이유의 절반은 학교에 깨끗한 물과 안전한 위생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06). 여학생들은 생리 시기가 오면 특히 결석률이 높고, 심할 경우 자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한 깨끗한 물이나 안전(privacy)이 보장되는 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 학교의 51%만이 깨끗한 식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적절한 위생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4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소녀들이 처한 보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한 해 약 27만 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산후 6주 안에 출산과 관련한 이유로 사망하는데, 그 99%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Kassebaum NJ., 2014), 이들 중 많은 수가 소녀이다. 문제는 모성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의료지식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나, 또는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녀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혼수품을 받기 위해 조혼을 ‘강요’당한다. 이렇게 되면 이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 나이에 출산으로까지 이어져 소녀자신의 건강과 어린 신부가 낳게 될 아기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다시 그 가족과 사회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조혼은 18세 미만 아동의 결혼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소녀와 연관되어 있고, 많은 경우 이는 소녀의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UNICEF는 향후 약 10년 간 1억 4천 만 명의 소녀들이 조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계적으로 조혼풍습이 줄고 있기는 하나 그 감소속도는 매우 느리다. 지난 30년 간 조혼풍습은 겨우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조혼은 일찍 결혼하는 소녀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소녀가 출산할 아이와 소녀가 속한 지역사회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조혼은 우선 소녀들이 중학교를 중퇴하는 이유의 20%를 차지한다. 조혼을 1년 지연하면, 학업을 약 3개월 가량 더 하게 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확률이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eld and Ambrus 2008; Lloyd and Mensch 2008; Nguyen and Wodon 2015). 이와 같이 소녀의 이른 결혼시기를 늦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모성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기간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임신부가 균형 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산과정에 안전한 분만을 가능하게 하고, 출산 터울을 조절해주며, 임신 및 산후 관리기간에 적절한 의료상담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출산 전후 및 출산 중 출혈, 자간, 감염, 유산 후유증에 적절히 대처하고, 안전한 낙태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모성보건 즉 산모나 엄마의 건강은 소녀를 제외하여 논하기 어렵다. 가임기 전 또는 초기에 있는 소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리 구현의 첫 시발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소녀는 미래 가정의 주체로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여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은 소녀를 위한 집중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정부는 소녀를 중심으로 SDGs 달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G)’ 구상을 발표하여, 향후 5년 간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2억 불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KOICA는 UNESCO, UNFPA 등 국제사회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 소녀들의 교육과 보건, 미래역량에 중점을 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이행하려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2016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녀들의 교육과 보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소녀의 교육과 보건은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소녀를 위한 교육, 보건의 개발에 있어 갖는 중요성)

우리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가 소녀의 교육과 보건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녀는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소녀의 교육과 보건의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무수히 많은 근거가 있으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 있어서 남녀학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전체 아동의 교육지표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 감소와 아동사망에 가장 강력한 해법인 것으로 그 근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출처: Klasen (2005), Klugman et al. (2014)

1. 소녀 교육과 모성 건강

소녀를 교육시키면 모성사망이 감소한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소녀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사망할 확률은 12년 동안 학교교육을 받은 소녀보다 2.7배가 높다. 그리고 6년 동안 학교교육을 받은 소녀보다는 2배 가량 높다(Karlsen et al., 2011). 소녀를 교육시키면 청소년 임신률이 줄어들고, 이들의 의료이용 행태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소녀를 교육시키면 결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을 늦추어 출산율이 감소한다(Murtin, 2013). 소녀들이 교육을 받으면 결혼시기를 늦추고, 기대하는 자녀 수 또한 감소한다. 이는 소녀를 교육하면 교육받은 소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해 결혼시기와 출산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6). 첫 출산시기의 지연은 출산율 감소 외에도 모성보건 전반에 걸친 건강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2. 소녀를 위한 보건사업의 근거

전술한 바와 같이 한 해 약 27만 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산후 6주 안에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이유로 사망한다. 소녀들에 대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모성사망과 아동사망의 감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녀 시기가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지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SDGs는 5번째 목표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성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소녀 교육과 아동 건강, 가족건강, 자녀교육

소녀를 교육시키면 신생아와 아동사망이 감소하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며, 가족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증가로 이어진다(World Bank, 2001). 교육받은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엄마의 아동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엄마의 아동에 비해 결핵백신을 접종받을 확률이 50%가 더 높다(Lay & Robilliard, 2009). 또한 인도에서는 수도파이프를 통한 식수공급이 늘어날수록 아동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는 교육을 받은 엄마를 둔 아동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소녀들에 대한 더 나은 교육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건강에 더 많은 지출을 하여 아동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World Bank, 2016).

4. 소녀 교육과 HIV/AIDS

소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또한 HIV/AIDS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Godoy & Contreras, 2001; World Bank, 2003).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녀를 교육시키면 열대우림 호와 같은 환경보존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Godoy & Contreras, 2001; World Bank, 2003).

5. 소녀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의 근거

SDGs는 소녀를 위한 성평등과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고, 조혼이나 여성할례와 같이 소녀에게 불리한 지역사회의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가족계획과 피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성보건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가족계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단지 피임서비스 개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 내의 남성과 지역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규범과 법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남성과 지도자를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잘못된 사회규범을 변화시키고 성생식보건에 대한 여성과 소녀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lugman et al., 2014; Azevedo et al., 2012).

또한 조혼을 감소시키면 출산율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과 국가의 소득까지 증대한다. 일례로 조혼 비율이 매우 높은 니제르의 경우, 조혼을 종식시키면 1인당 GDP가 약 0.25에서 0.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혼 금지가 가난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조혼 금지는 소녀들이 자라 건강한 노동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고, 여성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의 개발에 건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혼 금지는 아동사망 감소와 아동성장부진 감소로 이어져 세대를 넘어선 효과를 가져온다. 조혼 금지로 인해 출산준비가 된 건강한 성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더 건강하며, 이렇게 더 건강한 아이는 더 좋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Nasrullah et al., 2014).

III. 목표, 핵심가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표와 핵심가치를 갖고 있다.

1. 목표

개발도상국 소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학교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소녀들이 사회의 여성인재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2. 핵심가치

가. 취약집단의 소녀들에게 교육과 보건의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지난 MDGs 기간 동안 교육과 보건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였지만, 이는 모든 계층과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밖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타 집단에 비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보건의 기회가 매우 부족했으며, 특히 분쟁이나 재난상황 등의 취약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취약계층의 소녀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소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MDGs 기간 동안 진행된 초등학교 진학을 향상 등 일부 교육지표의 빠른 개선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초교육 등록률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녀들이 높은 퇴학률과 결석율을 보이고 있다. 설사 졸업을 한다 해도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초산술능력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적절한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어렵사리 졸업한 소녀들조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주요한 인재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녀에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 전체로 환원되지 않아 주민들은 다시 소녀에 대한 교육과 보건 분야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소녀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다. 소녀 친화적인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한다.

소녀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녀친화적인 학교환경을 구축한다. 식수와 위생시설을 지원하여 소녀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녀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과 성 생식보건을 강조하여 생애주기 중 가임기 과정 초기에 들어선 시점부터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여 소녀 자신의 일생 및 이후의 자녀와 가족,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녀에 대한 학교 교육과 미래역량교육을 지역사회가 적극 지지하도록 조혼이나 여성할례 등을 방지하고,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IV. 세부 추진 프로그램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는 소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소녀친화적인 교육과 보건환경을 구축하며, 지역사회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개발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을 본 구상의 골자로 한다.

따라서 본 구상의 기본 프로그램은 소녀 교육, 소녀 보건 및 소녀 미래역량 강화로 구성된다. 이 구상을 통해 보다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며, 나아가 이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다.

〈그림 1〉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주요 프로그램



출처: KOICA (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브로슈어

1. 소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가. 학업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 효과적인 학습법 및 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초등 교육과정 개선과 교보재 개발 지원

우리는 그동안 취학률에 집중한 교육개발사업에 가리워진, 낙후된 교육의 품질을 조명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졸업을 하더라도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문해 또는 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녀들이 많다. 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교사의 역량에 주목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인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학습 교보재 등 소녀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교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교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보재 개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한다.

나. 취약집단을 위한 포용적 교육

- 학교 밖 혹은 분쟁지역 소녀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 학습보조금 및 교보재 지급을 통한 소녀교육의 경제적 장애물 감소

교육은 특히 소녀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내전, 자연재해, 빈곤에 처한 소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우리는 특히 분쟁 및 취약지역 소녀들, 학교 밖 소녀들의 교육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소녀들을 위해 간이학교를 개설하고, 단기속성교육을 제공하는 등 분쟁 및 취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

빈곤가정의 소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 부족이다. 우리는 소녀들에게 교육보조금이나 학습 교보재 등을 지원하거나,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

2. 소녀 친화적 보건환경

가. 소녀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깨끗한 식수시설, 성별이 분리된 위생시설 및 안전하고 소녀 친화적인 학교를 통한 학습환경 개선
- 위생, 영양, 성 생식보건을 위한 교육 풍토 조성

많은 소녀들이 생리기간에 적합한 위생시설이나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소녀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 우리는 깨끗한 식수시설, 성별이 분리된 위생시설, 적절한 영양지원을 통해 소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학교가 위생, 영양, 성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소녀친화적인 교육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 교과과정을 넘어서며 남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특별 교육과정이나 캠페인 등 소녀친화적인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나. 소녀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구축

- 시민사회 및 정부의 캠페인을 통해 조혼, 여성 할례와 성 기반 폭력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성 생식 건강 교육을 위한 사회 보건인력 역량 강화
-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
- 소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인식증진 활동 지원

많은 소녀들은 빈곤 혹은 재난의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떠맡고 있다. 물고기,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거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출산하기도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의 조혼, 성폭력 등의 위험은 소녀의 건강은 물론 향후 태어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소녀의 진학률을 높이고 미성년 임신, 성폭력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혼, 이른 출산, 성폭력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소녀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가꾸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소녀들에게 꼭 필요한 피임, 성병 예방과 같은 성생식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3. 소녀의 미래 역량 강화

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 직업 현장에 부합하는 직업기술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학습자원 제공
- 시장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 제공을 위한 지역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어렵사리 소녀들을 교육시키더라도 졸업 후에 그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많다. 이는 학교의 직업기술 교육 자체가 부재하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실제 직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녀들의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로 환원될 있도록 직업현장에 부합하는 교육커리큘럼 개발과 학습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소녀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여성 인재로 성장하여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업기술을 위해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직장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문해 교육, 생산교육 등 농촌지역 여성이 필요한 기본 능력 제고
- 여성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리더십 지도 및 멘토링 기회 지원
-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취업능력 신장

우리는 농촌지역의 여성의 역량강화에도 집중하고자 한다. 농촌, 특히 격오지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 여성들은 정보 접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교육접근성도 매우 낮다. 우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수 문해 및 수리 교육 등을 실시, 격오지 지역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기본적인 문해, 수리능력 뿐만 아니라 지도자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사회 내 중요한 한 구성원이라는 자신감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 한다.

또한 학교라는 제도권 내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소녀나, 아예 학업기회를 놓친 소녀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학교 밖 소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한다. 지역사회 소녀들이 적절한 기술을 배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여성의 권리가 높이고, 이는 다시 여성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되고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도울 것이다.

V. 결론

국제사회는 MDGs에서 SDGs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인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초등교육 보편화를 상당부분 이루었고 모성과 아동사망의 수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빈곤 계층의 소녀들, 재난 상황에 놓인 소녀들은 여전히 이러한 흐름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소녀들이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조혼 등 잘못된 풍습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풍부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구상하였다.

소녀가 자라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

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 우리는 여성 경제 참여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받은 여성인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임에 주목하며, 소녀들에 대한 지원이 개발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길임을 확신한다. 소녀들에 대한 투자는 이처럼 향후 모성 및 아동보건에 기여하고, 가정과 지역 경제 향상에 기여하여 개발효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 어느 것보다 높다.

소녀들의 권리 실현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녀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동안 양성 평등 및 젠더 이슈는 국제사회의 오랜 관심사였다. 우리는 이를 ‘소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사회가 ‘소녀의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통해 소녀를 대상으로 구현하는 양질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양성을 돕고,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인 사회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소녀들은 마음껏 꿈을 꿀 권리가 있다.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제 IV 장

〈참고문헌〉

- KOICA. 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브로슈어 (2016.03. 발간예정)
- Azevedo, J. P., M. Favara, S. E. Haddock, L. F. Lopez-Calva, M. Muller, and E. Elizaveta. 2012. *Teenage Pregnancy and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Teenage Fertility Decisions, Poverty and Economic Achieve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Field, E., and A. Ambrus. 2008. “Early Marriage, Age of Menarche, and Female Schooling Attainment in Banglade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5): 881-930
- Godoy, R., and M. Contreras. 2001.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 and Tropical Deforestation among Lowland Bolivian Amerindians: Forest Values,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School Subsid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9(3): 555-74
- Karlsen, S., L. Say, J.-P. Souza, C. J. Hogue, D. L. Calles, A. M. Gülmezoglu, and R. Raine.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ducation and Mortality among Women Giving Birth in Health Care Institutions: Analysis of the Cross-Sectional WHO Global Survey on Maternal and Perinatal Health.” *BMC Public Health* 11(606)
- Klugman, J., L. Hanmer, S. Twigg, T. Hasan, J. McCleary-Sills, and J. Santamaria. 2014. *Voice and Agency: Empowering Women and Girls for Shared Prosperity*.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Klugman, J. 2014.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Public Spending on Health and the Military One Decade after the African Women’s Protocol: Focu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and the African Women’s Protocol.” *African Human Rights Law Journal*, 14 (2): 705-34
- Klugman, J., L. Hanmer, S. Twigg, T. Hasan, J. McCleary-Sills, and J. Santamaria. 2014. *Voice and Agency: Empowering Women and Girls for Shared Prosperity*. Washington D.C.: World Bank

- Lay, J., and A. S. Robilliard. 2009. "The Complementarity of MDG Achievements, The Case of Child Mortality in Sub-Saharan Afric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vol.5062, Washington D.C.: World Bank
- Lloyd, C. B., and B. S. Mensch. 2008. "Marriage and Childbirth as Factors in Dropping Out from School: An Analysis of DHS Data from Sub-Saharan Africa." *Population Studies* 62(1): 1-13
- Murtin, F. 2013. "Long-Term Determinant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1870-2000."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2): 617-31
- Nasrullah, M., S. Muazzam, Z. A. Bhutta, and A. Raj. 2014. "Girl Child Marriage and Its Effect on Fertility in Pakistan: Findings from Pakist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6-2007."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8(3):534-43
- Nguyen, M. C., and Q. Wodon. 2015. "Early Marriage, Pregnancies, and the Gender Gap in Education Attainment: An Analysis Based on the Reasons for Dropping out of School." In *Child Marriage and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edited by Q. Wodon. Washington D.C.: World Bank
-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New York: UNDP
- UNESCO. 2015.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 Paris: UNESCO
- World Bank. 2016.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16: Development Goal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03. *Achieving Universal Primary Education by 2015: A Chance for Every Child*.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Policy Research Report* 2177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